



김윤동

# 마무리는 '돌직구'

## KIA 김윤동 2018시즌 리허설

‘걱정 많던’ 김윤동의 2018시즌 리허설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가 4승 1패로 마무리됐다. 지난 20일 사직구장에서 진행된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가 강풍 및 한파로 노계임이 선언된 뒤, 21일 경기는 개시도 못하고 우천 취소됐다. 앞선 15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도 우천으로 취소되는 등 KIA는 예정됐던 8경기 중 5경기를 소화하는 것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종료했다.

**시범경기 3경기 등판 무실점·1홀드·1세이브  
직구로만 승부해 연투 테스트 합격점  
“아직은 부족 ... ‘필승조’ 부담 되지만 더 잘하겠다”**

날씨가 전력 점검에 악재가 됐지만 변함없는 타선의 힘 그리고 마운드 주축 선수들의 저력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필승조 막내’ 김윤동의 시범경기도 ‘성공적’이었다. 3경기에 등판한 김윤동은 3.2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1홀드, 1세이브를 기록했다. 김윤동은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통해 시범경기 첫 등판을 소화했다. 5-4로 앞선 9회 등판한 김윤동은 11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잡으며 세이브를 올렸다. 새 시즌을 위한 스타트를 잘 끊었지만 김윤동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노력과 욕심에는 부족한 결과”라는 게 김윤동의 이야기였다. 김윤동은 “결과는 좋았지만 부족한 느낌이다. 야

구가 더 높아야 하는 데 줄고 있는 느낌이다(웃음). 겨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 캠프에서 결과가 좋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윤동은 코칭스태프의 지시로 직구만으로 두산 타자들을 상대했다.

“직구로만 승부하면서 힘을 느껴보라고 하셨는데 승부를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다”는 김윤동은 다음 경기에서도 직구로 승부를 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변화구를 더해 21개의 공을 던지면서 1.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연투 테스트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김윤동은 지난 시즌 KIA 불펜진 중 유일하게 시즌을 완주했다. ‘만행’ 임창용과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세현과 함께 필승조를 구성하며 한국시리즈 무대까지 밟았다. 현재의 순간이 김윤동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다.

김윤동은 “처음 야구할 때는 1군에만 올라가 보자는 생각이었다. 지난해 풀타임도 처음 뛰었고 2017년 우승 멤버로도 이름을 올렸으니 뭐가 하나니는 이룬 기본이다. 위로가 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도 된다. 한 시즌을 잘 보냈는데 다음 시즌을 못할 수도 있다. 아직 내 자리를 잡지 못했다. 솔직히 필승조라는 소리를 듣기 민망하다. 더 잘해야 한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나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은 ‘필승조’가 아니라는 김윤동. 걱정 속에서도 시범경기는 잘 마무리했다. 지난 1년을 통해 야구의 깊이가 더해진 김윤동이 ‘진짜 필승조’를 꿈꾸며 2018시즌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BO리그 올시즌 879만 관중에 도전

### KIA는 100만 관중 목표

KBO리그가 2018시즌 879만 관중에 도전한다.

KBO가 21일 정규시즌 목표 관중을 발표했다. 10개 구단이 정한 올 시즌 목표 관중은 879만명(경기당 평균 1만220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840만688명(경기당 평균 1만1668명)보다 4.6% 증가할 수 있다.

사상 첫 5개 구단 100만 관중이라는 목표도 제시됐다.

지난해 10개 구단 중 최다 관중(113만484명)을 기록한 LG는 올 시즌 120만명을 목표로 2년 연속 리그 최다 흥행 구단 자리를 노린다. 115만명을 목표로 한 두산은 KBO 리그는 물론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 사상 최초로 10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에 도전한다.

SK는 지난해 89만2541명에서 12% 증가한 100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돌아온 프랜차이즈 스타 김광현을 앞세운 SK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홈 관중을 1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KIA도 100만 관중 목표에 함께한다. 지난해 구단 역사상 최초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던 KIA는 ‘100만’을 목표로 해 올 시즌을 출발한다. 롯데도 110만 관중 유치에 나서는 등 5개 구단이 100만 고지를 넘는다.

kt는 창단 이후 최다 관중인 75만명을 목표로 하고, 삼성 74만명, 넥센 70만명, 한화 60만명, NC는 55만명을 목표로 새 시즌을 맞는다.

한편 2018시즌 정규시즌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 잠실, 문학, 고척, 마산 등 5개 구장에서 개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팬북 2만부 발간

### ‘동행+(함께, 그리고 진화)’ 컨셉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 팬북 2만부를 발간했다.

‘동행+(함께, 그리고 진화)’를 컨셉으로 한 올 시즌 팬북은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선수단의 이미지로 표지를 장식했다. 또 11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을 새겨 넣어 ‘명가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팬북은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A4 사이즈의 화보로 제작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 모습을 화보로 엮어 특별함을 더했다. 화보와 함께 다양한 테마의 인터뷰 등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을 비롯해 김기태 감독이 추구하는 ‘동행 야구’가 소개되고, 조계현 단장이 구상하는 구단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수들의 인터뷰도 다양해졌다. KIA 열혈팬인 가수 이보람이 임기영-김윤동을 만나 팬으로서 궁금한 내용을 물었고, 이적 첫째 우승에 일조한 이명기-김민식의 와이프 인터뷰도 진행됐다.

이적과 군 전역 등으로 타이거즈에 복귀한 정성훈, 문경찬, 박정수의 인터뷰는 ‘웰컴백 타이거즈(welcome back Tigers)’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밖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좌석 소개와 구단 마스코트인 호걸이·호연이가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렸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한 나눔 활동 이야기도 담겼다.

팬북은 1만원에 케이엔코리아 타이거즈 온라인숍(www.tigersshop.kr)에서 판매된다.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팬북 구입 문의는 케이엔코리아(02-2265-0794)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영미~ 우승 가야해”

### 여자컬링 ‘팀 김’ 세계선수권서 중국 12-3 격파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열린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6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김은정 스킵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날 중국을 12-3으로 완파한 한국 대표팀은 스웨덴(7승)과 캐나다(6승)에 이어 5승 1패로 단독 3위를 질주했다.

## 신의현, 평창 패럴림픽 ‘톱 5메달’ 수상자

### 최고의 명장면은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동메달 사냥 순간

####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정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첫 금메달 쾌거를 이룬 신의현(38·장성건설)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뽑은 톱5 메달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IPC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80개를 포함한 총 241개의 메달 가운데 눈에 띈 메달 수상자 5가지를 선정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선수단 역대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신의현을 포함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신의현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7.5km 좌식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신의현의 금메달은 한국이 1992년 알베르빌 대회를 통해 동계패럴림픽에 데뷔한 후 26년 만에 따낸 첫 금메달이다.

IPC는 “신의현이 한국의 유일한 금메달리스트 이면서 안방 대회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선수”라며 톱5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메달 13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과 전관왕을 아깝게 놓쳤어도 알파인스키 시각장애 부문에



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헨리에타 파르카소바(슬로바키아),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한 중국의 휠체어컬링, 크로스컨트리 시각장애 부문에서 5연패를 달성하며 동계패럴림픽 통산 11번째 금메달을 딴 브라이언 맥키버(캐나다)도 톱5에 들었다.

이와 함께 동계패럴림픽에서 첫 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의 동메달 사냥 순간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면 톱5에 포함됐다.

최고의 명장면 톱5에는 한국 썰매하키 동메달 외에 암 수술 후 두 달 만에 여자 스노보드 2관왕에 오른 비비안 멘델-스피(네덜란드)의 금메달 획득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이승훈·윤성빈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

### 우수선수상은 최민정·이상호

#### 장애인 부문 우수선수상 신의현

‘빙속 황제’ 이승훈(대한항공)과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강원도청)이 제23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두 선수는 2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씩 받았다.

이승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했고, 김민석(성남시청)·정재원(동북고)과 함께 출전한 남자 팀 추월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4년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윤성빈은 불모지였던 스킨레톤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의 동계올림픽 도전 역사상 썰매 종목에서 나온 첫 번째 메달이다. 윤성빈은 “비인기 종목인 스킨레톤을 알릴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 윤성빈이 아닌 스킨레톤이란 종목을 오랫동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평창 눈물을 쏟았다.

우수선수상(비장애인부문)은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최민정(성남시청)과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은메달)을 획득한 이상호(한국체대·스노보드)가 받았다.

장애인 부문 우수선수상은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도전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장애인 노르딕스키 대표팀 신의현(장성건설)이 차지했다. 신의현은 장애인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금메달, 15k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수 단체상은 평창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봅슬레이 남자대표팀(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컬링 여자대표팀(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받았다. 컬링 대표팀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 중이어서 부모님들이 대리 수상했다.

우수선수상과 단체상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신인상 수상자로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한국체대), 2017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여자 접영 2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안세현(SK텔레콤)이 각각 선정됐다.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공로상을 세라 머리 감독을 비롯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받았다.

/연합뉴스